

# 해외뉴스

## 캐나다 밴쿠버

### 가 오일샌드업체, 오리 폐사에 300만 달러 배상

캐나다의 대형 오일샌드 업체인 신크루드가 공장폐유로 인한 오리 집단 폐사 배상 합의금으로 3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앨버타주 세인트앨버트 지방법원은 이날 신크루드의 2008년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 신크루드와 원고측의 이 같은 배상금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현지언론들이 22일 전했다.

신크루드는 지난 2008년 오일샌드를 가공한 뒤 배출된 폐유 찌꺼기에 오리 1천600마리가 오염돼 집단폐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뒤 벌금 및 배상금 액수를 협의해 왔다. 합의금은 캐나다의 환경사건 관련 배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배상금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벌금으로 각각 30만 달러와 50만 달러, 앨버타 대학의 조류이동 연구기금으로 130만 달러, 앨버타 보존협회에 90만 달러가 지불된다. 신크루드 대변인은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그동안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작업공정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측도 “회사측이 책임을 인정했고,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서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만족을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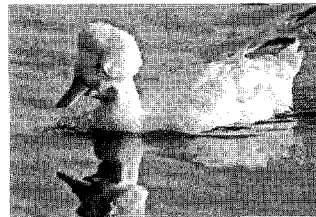
짐 프렌티스 환경부 장관은 밴쿠버를 방문 중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 강력한 환경법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영국

### “마를린 먼로 닮았나요?” 섹시 펌 스타일 오리 ‘눈길’



마를린 먼로의 헤어스타일과 유사한 오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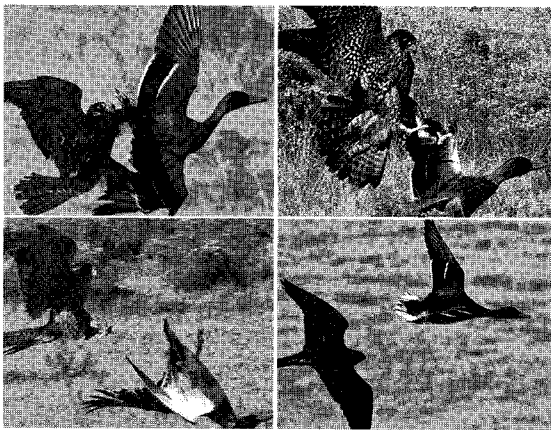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연못에 독특한 머리스타일을 한 오리가 등장했다”며 “머리 윗 부분이 살짝 말려 있어 마치 마를린 먼로의 헤어스타일을 연상케한다”고 전했다.

사진 속 오리의 모습은 이색적이었다. 다른 오리들과 유사했지만 빗 부분은 확연히 달랐다. 머리 위에 있는 둥글게 말린 빗이 마치 마를린 먼로의 트레이드마크인 웨이브 진 금발 머리를 연상케 했다. 오리가 파마라도 한 듯 독특한 모습이었다.

사진은 우연히 포착했다. 이 오리의 사진을 찍은 작가 레이니 솔러는 “사진 속 오리는 절대 연출한 장면이 아닙니다”라며 “100% 자연적인 모습을 찍은 것이다. 재미

있는 모습에 나도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네티즌들은 "사진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 마저 합성사진 같다. 오리의 모습이 매우 재미있다.", "이 전에는 본적 없는 오리다. 꼭 한 번쯤 실제로 보고 싶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생존 본능의 승리"...매로부터 도망친 오리 포착



매에게 잡힌 오리가 가까스로 도망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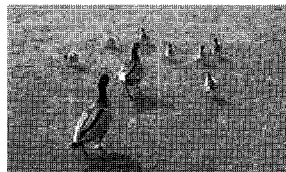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 근처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매가 오리를 잡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하지만 이 오리는 빠른 속도로 매에게서 벗어나 가까스로 살았다"고 전했다. 화제의 장면을 포착한 사람은 콜로라도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로버트 팔메(57). 팔메는 농장을 지나가던 중에 우연치 않는 기회에 이 장면을 보게됐다. 매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발톱으로 오리를 낚아챈 것. 매에게 잡힌 오리는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매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

버둥쳤다. 그럴수록 발톱이 점점 더 조여왔다. 오리는 마지막으로 힘차게 매를 떨쳐냈고 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장을 포착한 팔메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놀라운 장면이었다"며 "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려와 오리는 포착했다. 하지만 오리도 매의 발톱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빠져나와 유유히 갔다"고 전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반응은 뜨거웠다. 네티즌들은 "매보다 오리가 더 빠른 것 같다. 생존을 위한 오리의 몸부림이 대단하다", "오리가 빠져나와 다행이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 스포츠서울

### 호주 멜버른

#### 오리가족, 골프황제 타이거우즈 막아서



골프장에 나타난 때 아닌 오리가족이 골프황제 타이거우즈의 경기를 잠시 막았다.

11일 오전 멜버른 한 골프장에서 열린 호주마스터스골프대회 1라운드 경기에서 10여마리의 오리가족이 페어웨이로 들어와 10여분간 머무르는 일이 발생했다. 오리가족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타이거 우즈는 이 모습을 한동안 지켜봤다.

타이거 우즈는 잠시 휴식을 취하다 오리가족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스윙 연습을 하는 등 초조함을 달랬다.

오리가족이 한 쪽으로 몰려나자 타이거 우즈는 경기를 재개했다.

출처 : 연합뉴스

